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21만원...작년비 1.6% ↑

aT 조사...대형유통업체비 전통시장 11% 저렴 사과·배 가격 하락...배추·무는 날씨 영향 상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류 가격은 내린 반면 배추와 무는 지난달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수요가 늘어 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aT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9천494원으로 작년보다 1.6% 더 든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27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됐으며 차례 간소화 경향을 반영해 4인 가족 기준으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데 드는 차례상 차림 비용이 19만4천72원으로 대형유통업체 (21만6천450원)보다 10% 비용이 낮았다.

전통시장은 24개 조사 품목 중 14개가 대형유통업체보다 저렴하다.

다만 청주, 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

품과 정부 할인지원 영향으로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설도), 조기, 밥 등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낫다.

사과(홍로·상품) 중도매가격은 10kg에 7만7천980원으로 1년 전보다 4.2% 내렸지만, 평년보다 41.1% 비싸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공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부 할인 지원이나 마트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값이며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값이다.

배(신고·상품) 중도매가격은 15kg에 6만4천70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8.3%, 21.0% 비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사과와 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 이는 대형마트가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농림축산부 할인쿠폰(농할쿠폰)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사과(1kg)를 작년보다 25%

저렴한 9천155원에, 배(3kg)를 35% 저렴한 1만320원에 각각 판매한다.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정부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을 받으면 품목에 따라 최대 60% 저렴하게 장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배추와 무는 지난달 폭염과 열대야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데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 값이 올랐다.

배추(상품) 중도매가격은 지난 5일 기준으로 10kg에 2만7천820원으로, 1년 전보다 9.6% 비싸며 이는 평년과 비교하면 64.5%나 높다. 무(상품) 중도매가격은 20kg에 2만8천80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6%, 51.0%나 올랐다.

이마트는 배추 1포기를 작년보다 3% 오른 5천980원에, 무 1개는 87% 오른 3천7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으며 마늘도 잦은 비로 수확량이 줄어 시세가 7% 정도 올랐다.

햇상품 출하 전 재고 물량 감소와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친 밤과 대추 등 임산물 가격도 작년보다 올랐다.

aT 관계자는 "정부와 합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20대 성수품 중 대표적으로 사과와 배, 한우 가격은 내렸지만 조기와 배추, 무 등의 품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데이경제



전남농협, '요리·제과 경연'서 가루쌀 홍보

전남농협분부는 8일 "전남 초당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8회 초당대학교 총장배 전국 고등학생 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가루쌀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은 이날 경연대회 참가자 및 제과제빵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 원료인 가루쌀로 만든 빵을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경연대회 종료 후 가루쌀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경연대회 참가자들에게 가루쌀을 배부했다.

배부한 가루쌀은 농업진흥청에서 2019년에 개발한 가루미 2개 품종으로 글루텐이 없어 소화기 질환이 있는 비로 수확량이 줄어 시세가 7% 정도 올랐다.

햇상품 출하 전 재고 물량 감소와 추석 수요 증가가 겹친 밤과 대추 등 임산물 가격도 작년보다 올랐다.

aT 관계자는 "정부와 합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농협-광주아동복지협 '간식 후원' 협약

광주농협분부는 8일 "지난 5일 (사)광주아동복지협과 쌀 소비촉진 확산 및 소외계층 아동에게 '사랑의 간식'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쌀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현호 광주농협분부장, 최모세 광주아동복지협회회장, 문귀현 광주시청 아동복지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농협분부는 후원 협약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12개소(양육시설 10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 400여명의 아동들을 위한 쌀로 만든 과자와 음료를 전달했다.

최모세 회장은 "광주농협의 후원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佛 메종&오브제서 광주 우수 공예문화상품 선배

광주디자인진흥원, 도자 등 50여개 품목 전시 공동관 운영

광주디자인진흥원은 8일 "현지시간 5일-9일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에 광주 우수 공예문화상품 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메종&오브제'는 13만㎡ 규모의 전시관에서 매년 2천500여개 브랜드가 참가하고, 10만여명의 전문바이어가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광주 공예문화

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우수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도 메종&오브제에 참가해 미국 S사 등 100여건의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과 2억원 상당의 판매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더자기플러스 소쿠리 ▲화박

공방 ▲에이앤즈협동조합 ▲수다도자기 등 광주지역 5개 공방을 선정하고 이번 메종&오브제 참가 준비와 해외 수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노르 빌팽트 전시장의 공예관(Craft section) 중심부에 36㎡ 규모로 광주 공동관을 조성하

고 ▲도자 ▲섬유 ▲목공예 등 30여종 50여품목의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

더자기플러스는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병세트 등 6종을 내놓았고, 에이앤즈협동조합은 '약막이 명태기링' 등 섬유상품 6종을 선보였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지역의 우수 공예문화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로또복권

(제 113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21 33 35 38 42 44 /보너스 1		
1등	2,314,468,157	6개숫자일치
2등	61,719,151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1,592,890	5개숫자일치
4등	50,000	4개숫자일치
5등	5,000	3개숫자일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광주·전남 13명 입상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주그랜드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수민 충북 정부부지사를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422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의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중 광주지역은 금 1명, 은 2명, 동 5명, 장려상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지역에서는 금 1명, 은 1명, 동 1명의 선수가 입상해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중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신무진 선수(중 3)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점(만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무진 선수는 "이번 대회를 준비

하면서 끈기와 노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올해는 '데이터입력'이라는 종목을 도전했지만, 다음 대회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태호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회호
220603-중-13979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